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6일 화요일 음 8월 20일 (12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10%
20%	성산	10%
20%	고산	10%
20%	서귀포	10%

해돋이 06:32	달뜨기 20:47
해지기 18:12	달지기 10:09
물때 만조 00:20	간조 06:59
13:04	19:36

주간예보

생활·안전 기상정보

내일	구름많음	16/23℃
모레	구름많음	18/22℃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높음



월드뉴스

한국인 과학자 노벨상 품에 안을까

7일 화학상 수상자 발표
서울대 현택환 교수 유력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부문별로 발표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노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생리의학상 수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까지 부문별 수상자가 잇따라 발표된다.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순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과학 분야 수상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노결정(Nano Crystals) 합성 연구를 진행한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가 화학상 부문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모운지 바헨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크리스토퍼 머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와 함께 물리학, 생물학, 의학 시스템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노벨상 메달.

사용할 수 있는 나노결정 합성 연구를 진행했다.

평화상 부문에서는 올해 두각을 나타내는 단체나 인물이 없다. 다만 국제 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와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툰베리의 이름이 눈에 띈다.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문학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6년에는 포크록의 전설 밥 딜런이 문학상을 받으면서 평론가들 사이에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스웨덴 한림원이 성 추문에 연루돼 시상이 취소됐다.

연합뉴스

한라칼럼



김 윤 우

무릉외갓집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마침 신규마을기업 입문교육과정이 있어 필자로부터 그 과정을 추천받은 지인이 힘없이 던진 말이다. 지난 5월말까지만 해도 마을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양성한 추진의지를 보이며 이런 저런 자료를 챙기곤 했던 그가 이처럼 체념하다시피 포기한 이유가 자못 궁금해진다.

그는 비트 등 친환경 양재류를 활용해 여성용 화장품원료와 건강주스를 만들어 건강식품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공라인설치는 물론 관련 시장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마을기업 설립을 포기하고 덧붙인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마을공동체 복원의 침병’ 마을기업 살려야 한다

스스로 담보하기 힘이 들다는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어렵게 시장 진입을 한다 해도 한시적인 정부 지원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마을기업 여건으로 볼 때 오래 버틸 자신이 도저히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지원체계 등과 비교하며 마을기업 관련 기본법안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법’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그리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각 지원체계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10년도 우도영여조합법인을 제주도 최초의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행정지침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로 볼 때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인다. 어쩌면 그의 진단이 정확한 진단일지도 모른다.

제주도에도 40여개가 넘는 마을기업이 나름대로의 사업영역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5000만원이 넘는 마을기업이 8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자료 이외에도 매출이 전혀 없거나 아예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마을기업이 전체의 32.3%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는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했을 것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마을기업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필박해진 시장여건도 그렇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마을기업 관련 법안 부재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점점 쇠락하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원해 가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마을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한편 주민들 일자리까지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그날’ 등 선도적 마을기업들의 역할과 성과들을 볼 때 마을공동체 재생 모델로서의 그 가치와 효과는 높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을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건실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쇠락해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복원해 가는 침병역할을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제주도 노인체육회 발대식을 보며



김 병 우

제주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단축되면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 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어 2020년 5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0조 2항(노인체육의 진흥) 내용을 보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

정해 노인체육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미국의 ‘백아더 재단’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적당한 운동과 식사 조절 등으로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높은 수준의 정신·신체적 기능을 유지하여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체육활동은 성공적 노후 생활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껏 노인체육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대한체육회 활동에 참여지 못해 활동이 미미한 형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사)대한노인체육회가 발족해 800만 노인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늦게나마 9월25일 20여명이 모여 발기대회를 열어 9만 노인들을 위한 체육공부를 개발하고 육성,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기대가 크다.

디자인 도전을 함께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고 경 란

제주도 공공디자인팀장

얼마 전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디자인 흐름과 3D 모델링 활동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강을 신청한 분들은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20명 남짓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살다보면 여러 주변 환경에 따라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찾아가는 도중에도 도전적인 순간에 직면하면 몇 번이고 위기를 겪게 된다. 그 순

간 선택에 따라 인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분인이 가진 지식이나 역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기회를 기다리며 꾸준히 배우고 학습해야 한다.

오늘 특강에 참여한 분들은 좋아하는 디자인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덕분인지 자제가 무척 진지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예기치 못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우리 모두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감한 도전뿐이다. 디자이너의 길에 도전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귤 신제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둠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모둠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제품 다수보유
★ 모든 모듬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리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